

지난 8월 동국대 및 원광대 대학원에서 불교학 전공 철학 박사 네 명이 탄생했다.

동국대 경성 스님과 류효현 씨, 원광대 법진·법안 스님이 그 주인공으로 각각 제출한 논문 <불교 수행의 두타행 연구> <길장의 팔불중도관 연구> <조선 중기의 선사상사 연구> <한국약사정토사상에 관한 연구>로 박사 학위(2003년 후기)를 받았다.

경성 스님의 <불교 수행의 두타행 연구>는 의식주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불교 수행법인 두타행의 핵심을 파악함으로써 두타행의 현대적 의미를 재조명한 논문이다. 류효현

동국대·원광대 불교학전공 박사 4명 탄생

씨의 <길장의 팔불중도관(八不中道觀) 연구>는 길장 스님의 팔불중도관을 살피고, 그것과 연기·중도·공 등의 관계를 규명한 논문이다. 또 법진 스님의 <조선 중기의 선사상사 연구>는 서산 스님의 선사상의 내용과 그 영향을 살핀 것이다. 법안 스님의 <한국약사정토사상에 관한 연구>는 약사신앙의 역사를 고찰하고, 약사신앙을 정토사상으로 바

두타행은 동체대비 실현의 바탕

'불교수행의 두타행 연구' 경성 스님



두타행(頭陀行)은 의식주 전반에서의 소욕(少欲)과 지족(知足)을 이념으로 하는 불교의 수행법으로, 의식주에 대한 탐착을 끊어 실생활에서 자리(自利)와 이타(利他)를 동시에 구현하는 방편이다.

이와 같은 두타행은 경솔한 삼장에서 두루 다뤄지는데, <증일아함경> <열반경> <사분율> <십주비바사론> <대지도론> 등은 12두타를, <해탈도론> <정정도론> 등은 13두타를, <대승의장>은 16두타를 말한다. 이처럼 경

표 스님은 두타행을 근본으로 정진해 천인과 보살로부터 정계(淨戒)를 수지했다. 이들이 원형적인 두타행에 충실했다면, 해능(중국 638-713·원호(신라 617-686) 스님은 상황에 맞게 변형한 경우다. 특히 원호 스님은 <발심수행장>에서 '절하는 무릇이 얼음덩이처럼 차가와도 온기를 그

리워지지 않으며, 주된 창자가 끊어질 것 같더라도 밥을 구하지 않는' 두타행을 찬탄한다. 다른 한편 대승 속에서 동사

경에 따른 차이점

고승의 행적 등 분석

선으로 화합을 도모할 때는 무가(무부)를 부르며 결집 없는 행동을 보인다. 이 같은 두타행의 소욕과 지족에 대한 가르침은 계율을 정정하게 하는 터전으로 선정과 지혜를 증득하는 지름길이며, 중생과 자연에 이롭게 하는 동체대비 실현의 바탕이다.

중생과 자연을 나와 다른 상대로 인식하지 않고, 중생을 넘어 자연계 모든 존재까지 이롭게 하는 것이야말로 현시대에 맞는 두타행이라 할 수 있다.

분별심 떠난 '부정의 도' 밝혀

'길장의 팔불중도관 연구' 류효현 씨



팔불(八不)이란 옹수의 <중론> '귀경계'에 나타나는 불멸(不滅)·불생(不生)·부단(不斷)·불상(不常)·불일(不一)·불이(不異)·불래(不來)·불거(不去)를 일컫는 말이다. 기원상으로는 아함 및 초기 대승경전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해, <중론>에 와서 체계를 이룬 것이다. <중론>에서 팔불은 중도의 이치를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분별방상을 부정함으로써 중도의

실상을 드러내는 부정의 논리 전개에 활용된다. 옹수 및 삼론학파의 팔불중도설은 길장 스님에 의해 집대성되며, 그 내용은 <중관론소>에 집약해 나타난다. 이에 따르면 길장 스님은 '귀경계'의 팔불에 대해 먼저 생과 멸이 실제적이지 않음을 들어 불생 불멸의 세제중도(世諦中道)를 밝힌다.

인과법 입각한 실천 강조가 핵심

'한국 약사정토사상에...' 법안 스님



일반적으로 정토신앙 사상은 아마타정토로 대표되지만 석가정토를 비롯해 미륵·관음·지장정토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여기서의 관심사인 약사정토도 그 중 하나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선덕여왕(632-647) 시대에 이미 <약사경>이 설해졌으며, 초기에는 불교적 치료방법으로 기능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무게가 36만6천700근이나 됐던 분황사 약사여래 동상이 조성된 경덕왕대에 통일신라 약사불상의 대부분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아 이 시대에 약사신앙이 융성했음을 알 수 있다. 경덕왕대 유난히 전염병이 많이 돌았던 것도 약사신앙 확산에 기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약사신앙은 대개 신주(神呪)신앙으로 분류되는데, 그 원인은 현재 유통되는 <약사경>에 약사관정주(藥師灌頂呪)가 나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삼국시대에 유통되었던 현상 여본이나 범어본 등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어, 신주신앙으로 볼 근거는 없다. 그보다는 약사정토신앙의 범주에서 보는 편이 옳다. 원호 스님은 "정토란 모두

가 여래의 원과 행이 이루는 바이며, 저 정도에 생하는 자의 자력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고 했는데, 약사신앙은 그 특성을 온전히 갖고 있어 정토신앙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약사신앙에 대한 한국 최초의 체계적 저술인, 신라시대 태현 스님의 <본원약사경고적(本願藥師經古迹)> 또 한 밀교경전이 아니라 약사정토사상의 소의경전으로 봐야 한다.

<본원약사경고적>은 약사십이대원을 들쭉 묶어 요의정예문(饒益淨穢門)·세축세간문(世出世間門)·존계존신문(存戒存身門)·제내외고문(除内外苦門)·내외해박문(内外解縛門)·지식여의문(志食與義門)의 육대문(六對門)으로 분류하는 것이 특징이다.

<본원약사경고적>에 따르면 약사신앙은 대승의 돈교이면서 정토신앙이며 현재의 이익을 대표하는 신앙으로서, 인과법에 입각한 신앙적 실천을 강조하는 특징을 가진다.

그러나 이 세제중도는 진제가 거짓되게 드러난 것이므로 불생불멸은 가불생가불멸(假不生假不滅)이다. 여기서 거짓을 진실로 집착하는 견해는 논파되고 비불생비불멸(非不生非不滅)이라는 진제중도(眞諦中道)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세제와 진제는 중도를 설명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비생멸 비불생멸(非生滅非不生滅)로서 이제합명중도(二諦合名中道)이 밝혀진다. 이들 세 중도가 삼중중도(三種中道)다.

또 '관인연품'의 제1·2계에 대해서 길장 스님은 불생불멸의 중도, 불상부단(不常不斷)의 중도, 불일불이(不一不異)의 중도, 불래불출(不來不出)의 중도로 나눠 삼

중중도 성립을 논증한다. 이처럼 팔불로써 중도를 변증한 길장 스님은 팔불이 팔사(八事)를 초월한 공(空)이며, 인연이며, 실제 아닌 것을 실제라고 생각하고 집착하는 회문(戲論)을 떨치는 부정의 도라고 밝힌다. 그렇기 때문에 팔불이 성립하면 정법이 드러나고, 법의 불생이 깨달으면 제불이 현전한다고 길장 스님은 말한다.

팔불의 공관(空觀)은 인격의 자유·평등을 증득하기 위해 분별심으로부터 떠난 것이며, 팔불은 불교의 근본교리를 분명히 하는, 연기·중도·공이라 말할 수 있다.

풍납토성서 우물시설 발굴

한성 백제시대 나무로 짠 井자형

풍납토성(사적 제11호) 남동벽 문화재지구구역에서 약 15m-20m 떨어진 성의 외부지역에서 백제시대 '우물시설'이 발굴됐다.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김봉건) 한성백제학술조사단은 '井' 자형의 정방형으로, 네 면을 다듬은 목재의 양 끝을 '凸' 자형으로 깎아 결구해 쌓은 우물시설을 발견했다고 9월 7일 밝혔다. 이 우물의 깊이는 240cm며 최대 너비는 390cm.

우물은 전체적으로 중간부분은 볼록하고, 윗부분으로 가면서 좁아지는 형태로 목재 사이의 틈새나 외벽 전체에 접착을 이용해 방수처리 돼 있었음도 확인됐다. 조사단은 이 우물이 전체 17개의 판재를 세워 축조된 것으로 보고 있다.

우물의 축조 연대에 대해 조사단은 "목부재 외벽을 채운 흙에서 출토된 백제 토기편으로 미뤄볼 때 5세기대 경으로 추정된다"며 "한성백제시기의 발굴출토 유적 중 최초로 확인된 우물지"라고 밝혔다.

이번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우물지는 풍납토성 내부에 거주했던 당시 주민의 생활상 파악에 유익한 자료로



풍납토성 인근에서 발굴된 우물 목재기구(架橋) 측면

평가된다. 발굴 지역에서 우물지가 발견됨에 따라 조사단은 구조물 수습·보존 및 복원조치를 취하는 한편, 해당 목재 시료를 전문 기관에 보내 방사성탄소 연대 측정(C14-Dating)을 의뢰하고, 우물 내부부토 양분분석을 실시해 우물의 정확한 성격을 밝힐 예정이다.

백제유적 배치도 전산화 시작

부여문화재연구소, 32개소 대상...2005년 완성

백제시대 사비도성 내 부소산성 등 32개 유적이 전산화된다.

문화재청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소장 김용민)는 백제 사비도성내 유적지도 작성을 위해 지금까지 발굴 조사된 백제시대 유적배치도 전산화사업을 9월부터 착수한다고 9월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디지털 수치지도(1/5,000)를 기본도로 유적의 위치를 측정 △GIS 프로그램을 이용한 디지털 유적배치도 작성 △다양한 유구정보와 사진자료를 통합·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관계연구자들에게 CD로 제공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 전산화 사업은 유적이 밀집된 사비도성에 한해 구체적인 유구정보

가 볼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넓은 지역에 분포하는 유적의 위치와 범위 표시에 그친 기존의 지리정보체계와 구별된다.

사업의 완료 목표 시점은 2005년 5월이며, 공주대학교 군사과학연구원(원장 김만규)이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문화재청은 "앞으로 추가되는 사비도성 내 유적자료도 주기적으로 보완해 백제 사비시대 도성구조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고대도시도를 완성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GIS는 미국, 일본 등에서 문화유적의 보존·도시개발·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이용되고 있으며, 문화유적 지표조사에도 많이 활용되는 추세에 있다.

*기사 넘쳐 '우회중 교수의 불교와 생명과학' 쉽니다.

정토불교 체육지도자과정 제2기 교육생 모집

선 카이로프락틱, 운동처방, 선 내공체술

- 본 교육연수원의 설립취지**
불교의 대중화와 대중불교 사상을 홍보하기 위한 출가수행자 및 법사들의 포교방편과 스님들의 자활력을 갖추어, 병고에 시달리는 중생구제와 더불어 보시금이나 불전에 의존하지 않고, 주며 베푸는 따뜻한 스님을 양성기 위해 **정형외과 의사와의 대화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유능한 '카이로프락틱'**로서의 정토교육을 힘쓰고 있다.
- 교 과 목**: 카이로프락틱 교정 이론 및 실기(해부학, 스포츠및사지, 근육학, 운동처방 포함)
디스크(목, 흉추, 요추, 선추), 오십견, 두통, 관절통, 편마비 등의 교정 방법을 미국 팔머대학의 교재로 확실히 교육시킴
- 과 정**: 2급과정 교육기간 2개월(총 108시간) 지도자 자격증 발급
1급과정 2급과정 수료자로서 교육기간 1개월(총 54시간), 카이로프락틱 미니 플레이션
- 모집방법**: 2급과정 30명(선착순 마감)
●지원자격: 출가수행 스님 및 법사, 불자
●입학금 및 강의료: 출가수행 스님으로서 **승적증명서 제출자는 무료** (단, 식대 및 교재대 20만원)
●원서접수: 2004년 9월 2일 ~ 9월 25일 까지
- 입학일시**: 2004년 10월 4일 (월요일) 13시
- 원서교부처**: 정토불교 체육지도자 교육연수원 교학과 042)635-8186, 8187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동 241-14 호산빌딩

사단법인 정토불교 체육지도자 교육연수원

의승장 기허당 영규대사 추모 음악제

- 일시: 2004년 9월 17일 오후 4시 ~ 6시
- 장소: 옥천군 관성회관 야외공연장
- 주최: 옥천불교사암연합회, 옥천 문화원
- 출연: 영화 '서편제'의 오정해, 신명 풍물예술단
- 문의: 043)732-5560, 018-453-8453 (총무 혜철스님)

- 출연자 프로필**
 - ▷ 오정해
 - 학력: 국악고등학교 졸업, 중앙대학교 한국음악과 졸업, 중앙대 예술대학원 음악대학 석사, 전주 우석대학교 국악과 겸임교수
 - 출연작품: 영화 '서편제, 태백산맥', 뮤지컬 '쇼코미디', 악극 '머리 실을 악극 '아씨' 등 다수
 - 방송활동: 1998년 EBS어린이 국악교사를 시작으로 다수 출연. 현재 MBC 국악으로 여는 아침 MC, KBS FM 풍류마루 MC, 광주MBC 디류세상 우리 MC 진행 중.
 - ▷ 신명 풍물예술단
 - 1990년 3월 청주에서 신명 풍물놀이로 창단.
 - '제향 군인 학생 총회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세계 잼버리 축하공연', '유럽 7개국 순회공연', 'HI-SEOUL 페스티벌 공연'의 다수
 - 풍물의 예술적 가치의 절대적 존속을 목표로 수많은 작품 활동을 펼침.
 - 세계공연문화시장에서도 최상의 실력과 예술성을 인정받는 단체로 성장.